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봉사 및 기부와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Donating and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Highschool Students in Seongnam City

박선하, 박신혜, 이희영
성남외국어고등학교

Sunha Park(sh0505p@naver.com), Shinhye Park(psh4776@naver.com),
Heeyoung Lee(hyl0121@naver.com)

요약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교외봉사활동과 기부의 실태를 조사하고 봉사과 기부의 유무나 봉사활동의 형태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이 달라지는지 탐구하기 위하여 일반고 1개와 외국어고 1개에서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외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의 참여율에서 학교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여서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남학생들보다 높았다.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민주시민의식을 각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태도 평균이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참여 평균보다 높았으며,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주의 참여 평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높았다. 교외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고의 경우에만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교외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낮았고 교외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그룹과 금전적인 기부만 하는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으므로 금전적인 기부는 자원봉사활동과 보충적인 대체관계가 될 수 있었다. 봉사활동 시간이나 기관 같이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단일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동일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봉사의 지속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 중심어 : | 교외봉사활동 | 민주시민의식 | 금전적 기부 | 교외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 보충적 대체관계 | 봉사활동의 지속성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volunteering and donation of highschool students in Seongnam city and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To that end, 155 students from an ordinary highschool and a foreign language highschool participated in a survey. The result showed that female students' participation rates of volunteering and monetary donation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s between the schools. The civic consciousness level was not affected by the gender, but was affected by the schools. The scores for the attitude of democracy were better than those for the value and the participation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e students from the foreign language highschool had higher scores for the participation of democracy relative to the students from the highschool.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ivic consciousness scores between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and those who had not, only in the case of the students from the ordinary highschool. Additionally, it was revealed volunteering and donating were compensatory behavior. Although single factors in volunteering influencing the civic consciousness were not found, persistence was important.

■ keyword : | Volunteering Outside School | Democratic Civil Consciousness | Monetary Donations |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 Compensatory Behavior | Persistence in Volunteering |

* 본 논문을 지도해주신 이문수 선생님, 설문지 제작에 조언을 주신 송민경 교수님, 통계 지문을 주신 이솔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3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4월 23일

수정일자 : 2015년 04월 15일

교신저자 : 박선하, e-mail : sh0505p@naver.com

1. 서론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가져야 할 시민의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민주시민의 덕목을 인간의 존엄성, 기본질서, 자유사회의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덕목을 제시하였다[1].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는 크게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3가지 구성요소로 나뉘는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의 가치 영역은 인간의 존엄성, 국가 자긍심,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 존중에 대한 하위요소로 나누어서 도덕이나 사회교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시민의 태도 영역은 책임, 약속, 관용, 준법, 비판, 타협, 다문화 등의 하위요소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참여도 정치참여, 경제참여, 사회참여로 나누어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은 제도권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내용으로 주로 사회교과에서 제시되어 지식 위주로 교육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실천적 민주시민교육이 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한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천적 체험학습으로서 학생들이 교외에서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외부 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외부 봉사활동과 기부의 실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봉사와 기부의 유무나 봉사활동의 형태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이 달라지는지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의 외국어교과와 일반교과를 각각 1개씩 임의로 선택하여 교외봉사 및 금전적 기부와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행한다. 설문지를 통해 외부봉사 및 기부 여부와 만약에 참여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누구(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의 목적

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백민경(2013)에 의하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많고 지속성이 높으면 축적되는 교육적 효과도 커진다고 하였다[5]. 김지혜와 정익중(2012)은 금전적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multiplicative behavior)인지 아니면 보충적 대체관계(compensatory behavior)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둘 다 참여하는 집단,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에게서 기부와 봉사 간에는 보충적 대체관계가 있음을 밝혔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연구들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외부봉사활동과 기부의 실태는 어떠한가? 2)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3)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외부봉사활동이나 기부의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봉사활동

봉사는 “남의 뜻을 받들어 섬김” 또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기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들여 친절하게 보살펴주거나 일함”을 의미 한다[7]. 영어로 “volunteer”는 라틴어에서 유래되는 voluntas(자유의지)와 eer(사람)가 결합된 단어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이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교육부는 1995년에 입시와 지식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였다[8][9]. 특히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0]. 이와 같이 지식전달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들의 전인교육에 힘을 쏟을 뿐 만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로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2.2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자마다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 및 하위요소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이기영(2001)과 이재호(2004)는 똑같이 민주시민의식을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준법성, 합리적 의사결정, 개방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었으나 하위요소는 조금씩 다르다[11][12].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분류한 학자는 이수영(2009)으로 타인존중, 공공질서, 민주적 절차에의 참여, 합리적 의사결정의 각 구성요소가 하위요소들로 나누어진다[13]. 타인존중의 하위요소는 인권, 자유, 평등, 정의이고 공공질서의 하위요소는 절제, 공동체의식, 환경보호이다. 민주적 절차에의 참여에 대한 하위요소는 대화와 타협, 합의에 이르는 절차, 절차에 참여하고 약속과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하위요소는 언어의 사용, 사실의 확인, 가치 판단, 개방성이다.

홍승수(2009)는 민주시민의식을 인간존중의식, 준법의식, 책임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공동체의식으로 나누어 파악을 하였다[14]. 인간존중의식의 하위요소는 인권, 평등, 생명존중, 관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준법의식은 공공질서 준수, 교칙준수, 약속준수, 법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 책임의식에 대한 하위요소는 자율, 책임완수, 정의, 공익에 대한 의식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하위요소는 합리적 사고, 다수결 원리의 존중, 민주적 절차, 반성적 사고이다.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소로는 협동, 참여, 문화 상대성, 배려를 선정하였다.

안은성(2011)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민주시민의 가치 영역, 민주시민의 태도 영역, 민주주의 참여 영역의 세 영역별로 나누어서 민주시민의식의 하위요소를 설정하였다[4]. 이와 같이 비록 학자들마다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 및 하위요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시민의식 구성요소가 존재하는데,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태도에 대한 덕목이고 도덕적 행위에 관한 덕목과 비판적 사고력도 포함된다. 또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덕목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참여와 관련된 덕목들도 중요시되었다.

2.3 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지만, 민주시민의식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는 않다. 그 중에서 송복임(2002)은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 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해서 부산시내 중학교 8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시간이 많을수록 민주시민의식도 높았다.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 민주시민의식과의 상관관계도 긍정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사전교육여부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2].

안은성(2011)은 전라북도의 12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 250명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250명에게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원봉사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민주시민의식이 높았고 특히 참여자 중 소규모 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이 높았으나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참여기간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4]. 안은성에서는 자원봉사 동아리에 참가여부와 거주지역이 민주시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관이나 대상, 봉사활동의 종류, 그리고 봉사활동의 목적 등 다른 요소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봉사활동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동아리 활동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외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성남시에 소재하는 고등학생들로 설정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외부봉사활동과 기부 여부와 만약에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누

구(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또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하여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155명을 대상으로 외부자원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의 실태와 민주시민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어고에서 남학생 15명, 여학생 80명이 참가하였고 일반고에서 남학생 28명과 여학생 32명이 참가하였다. 설문지는 외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의 실태에 대한 9개 문항의 설문과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21개 문항의 설문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율적으로 설문지 조사에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3.2 설문지

9문항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에 대한 설문지는 우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나 또는 개인별로 교외에서 행해지는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의 유무를 조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기관(복지관, 보육원,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참여했는지 동아리나 집단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지도자나 부모님과 참여했는지 등의 참여형태와 자원봉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도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자원봉사를 한 시간과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만족도도 조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목적도 선택하도록 하여서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외부 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하였다.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지는 안은성(2011)의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민주시민의식의 설문

지는 민주시민의식의 3가지 구성요소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6문항(인간의 존엄성, 국가 자긍심,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 존중), 민주주의 태도에 대한 7문항(책임, 약속, 관용, 준법, 비판, 타협, 다문화), 민주주의 참여에 대한 8문항(투표참여, 시민단체 및 정당 참여, 대중매체를 통한 참여, 저항적 참여, 기업활동에 대한 관심,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참여, 지역사회 참여, 지구촌 차원의 참여)으로 총 21문항이었다[4]. 안은성의 설문지를 사용한 이유는 설문지 내용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 영역들과 하위요소들을 근거로 하여서 학교의 교육현장과 연계되어 있었고, 또한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가 .60을 넘었기 때문이다. 설문지 형식은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5단계로 나누고 가장 부정적인 대담에 1을 부여하고 가장 긍정적인 대담에 5를 부여하여 점수가 많을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3.3 분석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55명의 학생들을 엑셀에서 1번에서 155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열에 학교와 성별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 열부터 교외봉사활동에 대한 9문항에 대한 설문지의 내용을 엑셀에 넣었다.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총 21문항은 각 문항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넣었다.

4. 연구 결과

4.1 교외봉사활동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55명의 고등학생들 중에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28명이었고 27명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참여: 82.6%, 비참여: 17.4%).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외봉사활동의 실태를 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총 43명의 남학생들 중에서 28명이 참여하여서 남학생들의 참여율은 65.1%에 불과하였으나 여학생들은 총 112명 중에서

100명이 참여하여서 89.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교외봉사활동 참여율을 학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총 95명의 외국어고 학생들 중에서 83명이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총 60명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45명이 참여하였다 (외국어고 참여율: 87.4%, 일반고 참여율: 75.0%). 교외봉사활동 참여율을 성별로 다시 나누어보면 외국어고 남학생 15명 중에서 10명이 참여하여서 외국어고 남학생들의 교외봉사활동 참여율은 66.7%인 반면에 여학생들은 80명 중에서 73명이 참여하여서 91.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일반고 남학생의 경우 28명 중에서 18명이 참여하여서 64.3%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여학생은 32명 중에서 27명이 참여하여 84.4%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외봉사활동의 참여율은 외국어고가 일반고보다 높았으나 외국어고와 일반고 모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았다.

성별 및 학교에 따라 교외봉사활동의 참여율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외봉사활동의 참여율을 종속변수, 학교와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BM SPSS 21).

표 1. 봉사활동 참여 여부의 성별 및 학교별 분석

변량원	자승회(SS)	df	평균자승회(MS)	F	p
성별	1.366	1	1.366	10.124	.002*
학교	.059	1	.059	.435	.511
성별x학교	.014	1	.014	.102	.749
오차	20.368	151	135		
전체	128.000	155			

(*p < .05)

이원 분산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가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외부봉사활동의 참여율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2$). 그러므로 여학생의 외부봉사활동의 참여율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p=.511$) 성별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p=.749$). 따라서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외부봉사활동의 참여 여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금전적인 기부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총 155명에서 8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기부율은 52.3%로 외부

봉사활동 참여율보다는 낮았다. 전체 남학생 43명 중에서 16명이 기부한다고 응답하여서 남학생 기부율은 37.2%로 낮았으나 여학생은 112명 중에서 65명이 기부하여서 58.0%의 기부율을 보였다.

기부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외국어고 학생들은 95명 중에서 52명이 기부하였으며 일반고 학생들은 60명 중에서 29명이 기부하였다 (외국어고 기부율: 54.7%, 일반고 기부율: 48.3%). 학교별 기부율을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외국어고 남학생 15명 중에서 8명이 기부하였고 여학생 80명 중 44명이 기부하여서 남학생들의 기부율은 53.3%, 여학생들의 기부율은 55.0%를 나타내었다. 일반고 남학생들은 28명 중에서 8명이 기부하여서 28.6%의 낮은 기부율을 보였으나 여학생은 32명 중에서 21명이 기부하여서 65.6%의 높은 기부율을 보였다.

기부율이 성별 및 학교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금전적인 기부 여부의 성별 및 학교별 분석

변량원	자승회	df	평균자승회	F	p
성별	1.026	1	1.026	4.248	.041*
학교	.137	1	.137	.566	.453
성별 x 학교	.857	1	.857	3.548	.062
오차	36.466	151	.241		
전체	81.000	155			

봉사활동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기부의 경우에도 성별이 기부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p=.041$) 여학생의 기부율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p=.453$) 학교 차이가 기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었다. 또한 성별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p=.062$), 일반고 남학생들의 낮은 기부율 때문에 유의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성남시 고등학생의 기부 여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교외봉사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외봉사활동을 할 때 동아리나 집단으로 참여한 비율과 개인으로 참여한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동아리나 집단으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외국어고가 일반고보다 높았다. 또한 교외봉사활동을 할 때 대부분 선생님/지도자나 부모님/가족 없이 혼자 참석하였으며 같이 할 경우에는 부모님/가족보다는 선생님/지도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외봉사활동의 시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40시간 이하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기관은 매우 다양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많았다. 봉사활동의 대상은 어린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해외어린이 등이 있었다. 해외어린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외국어고 학생들로 편지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국어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부 대상은 월드비전, 플랜코리아, 다음희망해, 컴패션, 유니세프 등 다양했으며 6회 이상 지속적으로 기부한 한 학생의 비율은 38%였다. 교외봉사활동에서 실행한 활동들은 청소와 교육봉사가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스토리텔링, 외국어 관련 봉사, 말벗, 식사준비 보조 등이 있었다. 교외봉사활동의 목적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과 나의 발전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제일 많았으며 그 밖에도 대학갈 때 스펙을 위하여, 새로운 경험과 대인관계를 넓히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가 그 뒤를 따랐고, 봉사활동의 만족도는 과반수이상만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4.2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점수가 많을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도록 설계된 1에서 5까지의 Likert 척도에서 총 155명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평균 점수는 3.8점이었다. 민주시민의식 점수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전체 평균이 각각 3.8로 비슷하였다. 위의 결과를 학교별로 다시 나누어서 살펴보면, 외국어고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은 3.9점이었고 일반고는 3.7점으로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일반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어고 남학생들의 평균은 4.0, 여학생의 평균은 3.8이었으며 일반고 남학생들의 평균은 3.8, 여학생의 평균은 3.7이었다.

민주시민의식이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의 주효과가 있어서 외국어고 학생들

과 일반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 점수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12$). 그러나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p=.101$) 성별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p=.984$). 따라서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학교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모든 구성요소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각 구성요소 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민주주의 가치의 평균은 3.7점, 민주주의 태도 4.1점, 민주주의 참여 3.6점으로 세 영역 중에서 민주주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구성요소별 민주시민의식 점수가 유의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이 유의하게 달랐다 ($F(2, 462)=48.006, p=.000$). Bonferroni의 사후검정 결과 민주주의 태도의 평균은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참여 평균과 유의하게 달랐으나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참여 사이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민주시민의식의 각 구성요소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비교쌍	평균차이	p 값
민주주의가치 vs. 민주주의태도	-.44452	.000*
민주주의가치 vs. 민주주의참여	.07226	.450
민주주의태도 vs. 민주주의참여	.51677	.000*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주의태도의 평균만이 민주주의가치 평균이나 민주주의참여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태도 (책임, 약속, 관용, 준법, 비판, 타협, 다문화) 평균이 민주주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국가 자긍심,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 존중)보다 높은 이유는 민주주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국가 자긍심, 자유, 평등의 항목에서 보듯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에 민주주의 태도는 가치보다는 구체적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좀 더 실천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가치는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인 반면에 약속에 대한 문항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로 민주주의 태도에 대한 문항이 더 구체적이었다. 민주주의 참여 (투표참여, 시민단체 및 정당참여, 대중매체를 통한 참여, 저항적 참여, 기업활동에 대한 관심, 합리적인 소비자참여, 지역사회 봉사, 지구촌 차원의 참여)도 구체적이긴 하나 시민단체 및 정당참여나 저항적 참여 같은 일부 항목들은 학생들이 실천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민주주의 태도 평균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참여에 무관심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송수정(2001)도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은 사회 참여였다고 보고하였다[15].

민주시민의식의 각 구성요소인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민주주의 가치 평균은 남학생 3.8, 여학생 3.7이었다. 민주주의 태도 평균은 남학생 4.2, 여학생 4.1이었으며 민주주의 참여 평균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6이었다.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이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두 $p>.05$).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을 학교에 따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치의 평균은 외국어고와 일반고 모두 3.7이었고 민주주의태도의 평균은 외국어고와 일반고 모두 4.1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참여의 평균은 외국어고 3.7, 일반고 3.4이었다.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이 학교별로 유의하게 다르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가치와 민주주의태도의 평균은 학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모두 $p>.05$). 그러나 민주주의참여의 평균은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 153)=8.649, p=.004$).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원인은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주의참여 평균이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3 교외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분석

교외봉사활동의 참여 여부가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 4]와 같이 교외봉사활동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4. 교외봉사활동 참여학생과 비참여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구성요소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평균	참여	3.8	.36	1.324	.187
	비참여	3.7	.43		
가치	참여	3.7	.39	1.002	.318
	비참여	3.6	.41		
태도	참여	4.2	.38	1.201	.232
	비참여	4.1	.49		
참여	참여	3.6	.65	.825	.410
	비참여	3.5	.74		
외고 평균	참여	3.8	.37	-1.289	.201
	비참여	4.0	.37		
가치	참여	3.7	.39	-5.95	.553
	비참여	3.8	.41		
태도	참여	4.1	.38	-3.75	.709
	비참여	4.2	.49		
참여	참여	3.7	.71	-1.362	.176
	비참여	4.0	.64		
일반고 평균	참여	3.8	.32	2.913	.005*
	비참여	3.5	.35		
가치	참여	3.7	.39	1.938	.057
	비참여	3.5	.39		
태도	참여	4.2	.37	1.911	.061
	비참여	3.9	.48		
참여	참여	3.5	.51	2.407	.019*
	비참여	3.1	.58		

교외봉사활동 참여 학생들과 비참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외봉사활동 참여 학생들과 비참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 차이 뿐 만 아니라 각 구성요소별 평균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모두 $p>.05$). 학교별 t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어고의 경우도 전체 결과와 같이 교외봉사활동 참여 학생들과 비참여 학생들의 평균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두 $p>.05$). 따라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비참여 학생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고의 경우 교외봉사활동 참여 학생들

의 전체적인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비참여 학생들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각 구성요소별 평균 차이도 유의하거나 (민주주의 참여: $p=.019$), 유의 수준에 근접했다 (민주주의 가치: $p=.057$, 민주주의 태도: $p=.061$).

비록 일반고의 결과에서는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았지만,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차이가 없는 전체 학생들의 결과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결과는 이전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안은성(2011)에서는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4]. 본 연구의 예상과 다른 일부 결과는 우선 외국어고에서는 87.4%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따라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2.6%의 소수 학생들이 특수하게 민주시민의식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외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주 시민 의식의 수준을 연구한 송수정(2001)에 따르면, 성적이 좋을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았다고 하는데[14], 외국어고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좋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외국어고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적과 민주시민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교외봉사활동의 참여 여부와 마찬가지로 기부도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부 여부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5. 기부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평균

대상	집단	전체	가치	태도	참여
전체	참여	3.8	3.7	4.2	3.6
	비참여	3.8	3.7	4.1	3.6
외고	참여	3.9	3.7	4.2	3.7
	비참여	3.8	3.6	4.1	3.8
일반고	참여	3.8	3.7	4.1	3.5
	비참여	3.7	3.7	4.1	3.4

모든 대상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다.

기부도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부를 한 학생들과 하지 않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 차이와 각 구성요소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두 $p>.05$), 학교별 t검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두 $p>.05$). 따라서 기부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기부 여부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교외봉사활동도 안하고 기부도 안하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은 다음의 표에서 보이듯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외봉사활동과 기부 참여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평균

그룹	참여여부		민주시민의식 평균
	교외봉사	기부	
1	참여	참여	3.8
2	미참여	미참여	3.6
3	참여	미참여	3.9
4	미참여	참여	4.0

교외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전체 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금전적인 기부도 하지 않는 학생들 (그룹 2)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3.6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교외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금전적인 기부도 하는 학생들 (그룹 1)의 평균은 3.8이었다. 교외봉사활동에는 참여하나 금전적인 기부는 하지 않는 학생들 (그룹 3)의 평균은 3.9였으며 교외봉사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금전적인 기부는 하는 학생들 (그룹 4)의 평균은 4.0이었다.

각 그룹별로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유의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룹별 평균 차이가 유의했다. ($F(3, 151)=3.362, p=.020$). 그러나 Bonferroni의 사후검정 결과 그룹 2와 그룹 3, 그룹 2와 그룹 4의 평균 차이만 유의하게 달랐다.

표 7. 각 그룹별 평균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비교쌍	평균차이	p 값
그룹 2 vs. 그룹 3	-.27152	.045*
그룹 2 vs. 그룹 4	-.40941	.031*
그룹 2 vs. 그룹 1	-.24209	.086
그룹 3 vs. 그룹 4	-.13789	1.000
그룹 3 vs. 그룹 1	.02943	1.000
그룹 4 vs. 그룹 1	.16732	1.000

따라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금전적인 기부도 하지 않는 학생들 (그룹 2)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교외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그룹 3와 금전적인 기부만 하는 그룹 4간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기부라도 한다면 민주시민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기부는 자원봉사활동과 보충적인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지혜와 정익중(201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교외봉사활동에서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우선 봉사활동의 시간을 들 수 있다. 송복임(2002)은 부산지역 중학생들의 경우 교외봉사활동의 시간이 많을수록 민주시민의식도 높았다고 보고한 반면[2] 안은성(2011)은 전라북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기간은 민주시민의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봉사활동의 시간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을 살펴본 결과 10시간 이하는 3.8점, 20시간 이하 3.7점, 30시간 이하 3.9점, 40시간 이하 3.9점, 41시간 이상 100시간 이하 4.0점, 100시간 이상 4.1점이었다. 봉사활동의 시간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다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민주시민의식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봉사시간을 요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F(5, 122)=1.466, p=.206), 이는 안은성과 비슷한 결과였다.

봉사활동 시간 이외에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교외봉사활동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살펴보

았다. 집단으로 참여하나 개인으로 참여하나 모두 평균이 3.8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선생님/지도자와 같이 참여한 학생들(3.9), 부모님/가족과 같이 참여한 학생들(3.8), 같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3.8)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교외봉사활동 기관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3.9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한 학생들은 3.8이었다. 게다가 복수 응답자들이 많았으므로 봉사기관에 따른 차이는 찾을 수 없었다.

교외봉사활동의 대상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은 3.9, 노인 대상 3.8, 청소년 대상 3.9, 장애인 대상 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교외봉사활동에서 실행한 활동에 따라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청소 3.8, 교육봉사 3.9, 스토리텔링 3.9, 외국어 관련 봉사 3.8 등으로 교외봉사활동에서 실행한 활동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교외봉사활동의 목적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나의 발전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과 대인관계를 넓히려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은 모두 3.9였다. “대학갈 때 스펙을 위하여, 그냥 해야 하나까 의무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은 모두 3.8이었다. 또한 교외봉사활동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은 4.0, 만족 3.8, 보통 3.8, 불만족 3.9이었으므로 교외봉사활동의 만족도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봉사활동의 지속성(지속시간, 지속의지)과 청소년의 복지인식 사이에 관계를 연구한 백민경(2013)에 의하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많고 지속의지가 높으면 축적되는 교육적 효과도 커진다고 보고하였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봉사의 지속성을 동일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추정하여서, 지속적으로 교외봉사활동을 실행한 학생들과 다양한 여러 기관에서 40시간 미만으로 실행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식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은 4.1인 반면에 비지속적으로 한 학생들의 평균은 3.8이었다. 교외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비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에서 보듯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교외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과 비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비교쌍	평균차이	t	df	p
지속 vs. 비지속	.32268	2.199	126	.030*

따라서 동일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외봉사활동들 실행하는 지속성도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사료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교외봉사활동 참여율은 82.6%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들의 참여율 (89.3%)이 남학생들의 참여율 (65.1%)보다 높았다. 그러나 교외봉사활동 참여율에 대한 학교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부율은 교외봉사활동 참여율보다 낮았으나 (52.3%), 교외봉사활동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관계없이 여학생들의 기부율 (58.0%)이 남학생들의 기부율 (37.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봉사활동이나 기부에서 모두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원인은 여학생의 공감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덧붙여,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교외봉사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서 봉사활동의 참여형태와 실행한 활동, 기관, 대상, 시간, 목적, 만족도 등을 알 수 있었다.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점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어고: 3.9, 일반고: 3.7). 민주시민의식을 각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가치의 평균은 3.7점, 민주주의

태도 4.1점, 민주주의 참여 3.6점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태도 평균이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다시 성별과 학교별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태도, 민주주의 참여의 평균들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참여의 경우에는 학교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외국어고: 3.7, 일반고: 3.4). 그러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원인은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주의 참여 평균이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외국어고 학생들의 참여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학생들의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교외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전체 학생들의 결과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결과에서는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식 평균도 높은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낮아서 교외봉사활동 참여율과 민주주의시민의식 점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부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외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전체 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기부도 하지 않는 그룹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교외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그룹과 금전적인 기부만 하는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기부라도 한다면 민주시민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기부는 자원봉사활동과 보충적인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지혜와 정익중 (201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살

펴보면, 민주시민의식 수준은 봉사활동의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안은성(2011)의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또한 교외봉사활동의 참여 형태나 기관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의식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비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지속적으로 외부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봉사활동의 지속성이 클수록 교육적 효과도 커진다는 백민경(2013)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외봉사활동의 대상, 교외봉사활동에서 실행한 활동, 교외봉사활동의 목적, 교외봉사활동의 만족도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단일 요인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봉사활동이 민주시민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봉사활동 이외에도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봉사활동 이외에도 성격과 가정환경적 요인(송수정 2001), 성별(정수연 2004), 진로성숙도나 학업스트레스(곽민정 2010)도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성남시의 한 외국어고와 일반고의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한된 표본의 양을 가지며 특히 여학생 수가 우세한 외고의 특성으로 인해서 남녀학생의 비율이 불균형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성남시 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 현장에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외봉사나 금전적인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우선 봉사를 할 지 또는 기부를 할 지 결정하게 한 후에 학교에서 소개할 수 있는 봉사활동(예를 들면 초록나누미나 한사랑마을 장애인 봉사 등)이나 기부 단체(예를 들면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월드비전 등)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 민주시민의식과 봉사의 지속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40시간 이상 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택하고, 40시간 이상 봉사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은 기

부를 장려함으로써 봉사활동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시민교육*, 2009.
 [2] 송복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의식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박선향,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과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pp.167-186, 2010.
 [4] 안은성,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아리활동과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 백민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6] 김지혜와 정익중,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pp.133-158, 2012.
 [7] 현외성,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유평출판사, 1996.
 [8] 강인숙, *청소년 자원봉사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9] 고은교,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23-236, 2012.
 [10] 내일신문, “봉사활동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시선: 뜨겁거나 차갑거나”, 2014. 5. 17.일자.
 [11] 이기영,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 이재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 교육내용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3] 이수영, *온라인 게임이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4] 홍승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민주시*

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5] 송수정,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6] 정수연,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7] 곽민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저 자 소 개

박 선 하(Sunha Park)

준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관심분야> : 교육 콘텐츠, 사회과학 콘텐츠

박 신 혜(Shinhye Park)

준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관심분야> : 교육 콘텐츠, 사회과학 콘텐츠

이 희 영(Heeyoung Lee)

준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관심분야> : 교육 콘텐츠, 사회과학 콘텐츠